2019 정책연구과제 요약보고서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활성화 방안

정지원 지역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

연구진

정지원 지역경제연구실 연구위원

032-260-2639 | jiwon@ii.re.kr

열람방법

인천광역시 행정자료실

인천연구원 자료실, 홈페이지(www.ii.re.kr)

연구요약

1. 연구개요

○ 4차 산업혁명 관련 IT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가 국가와 기업의 혁신성장에 대한 핵심 키워드로 부상함으로써 데이터 경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급증

- 정부는 2018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I-KOREA 4.0 데이터 분야 계획, I-DATA^{+}」을 발표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데이터산업의 육성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

○ 인천시도 정부 정책에 호응하여, 2018년 7월 데이터기반행정추진단(TF)을 구성하고,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 행정 기본계획(2019~2022)」을 수립하여 발표함.

- 그러나 동 계획은 인천시의 행정혁신을 위한 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어, 지역의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데이터산업 육성에 대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

○ 이에 따라, 지역의 혁신수요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요구가 대두됨.

-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의 동향과 인천시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데이터 기업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역의 혁신수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데이터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2. 데이터산업 개념 및 정책 동향

데이터산업 개념

○ 한국데이터진흥원(2017; 2018)은 데이터산업을 데이터의 생산 · 수집 · 처리 · 분석 · 유통 · 활용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

- 또한, 데이터산업을 데이터 관련 제품과 기술을 판매·제공하는 데이터솔루션, 데이터구축,

데이터컨설팅과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데이터 기반의 정보제공 및 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서비스로 구분하고, 세세분류 기준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제시함.

○ 선행연구를 종합하고 지역의 수요 공급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인천지역의 데이터산업 육성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지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데이터산업 기반조성이 요구됨.
- 둘째, 데이터산업 자체가 경제성장의 원천으로서 작용할 뿐 아니라, 데이터가 하나의 자원으로서 사회문제 해결 및 새로운 가치창출의 촉매 역할을 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
- 셋째, 주력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므로, 기존 제조업의 혁신촉진 수단으로서 데이터산업 육성이 필요
- 넷째, 데이터산업은 AI, IoT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기술 산업과 결합되어 새로운 융합산업의 창출 및 생산성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음.

정책동향

○ 세계 각국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기 위하여 범국가 차원의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2010년대부터 적극적인 투자를 시행

- EU도 2017년 「유럽 데이터 경제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의 개방과 유통에 중점을 둔 데이터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 중국도 2016년 「빅데이터산업 발전계획(2016-2020년)」을 발표함으로써, 데이터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함.

○ 우리 정부도 '정부 3.0'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위한 정책적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2013년 10월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을 시행하였으나, 적극적인 데이터산업 활성화 정책은 2018년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 2018년 이전에도 빅데이터산업 발전전략(2013년), 클라우드 산업육성 및 사물인터넷 기본계획(2014년),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2017년) 등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의 육성계획이 수립되기는 하였으나, 데이터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의 틀을 갖추지는 못함.
- 데이터산업을 총괄하는 계획인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I-KOREA 4.0 데이터 분야

계획, I-DATA+」이 2018년 6월에 수립되었고, 이에 기초해 2019년 1월에는 데이터산업과 관련 산업의 연계를 위한 「혁신성장 전략투자-데이터·AI 경제 활성화 계획('19~'23년)」이 발표됨.

○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응하여, 인천시도 2018년 7월 데이터기반행정추진단(TF)을 구성하여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 행정 기본계획(2019~2022)」을 수립하였으며, 동 계획을 토대로 2019년에는 데이터혁신담당관실을 신설함.

- 인천시는 그동안 데이터산업보다는 확장된 범위인 IT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 초기부터 노력해왔으나, 여전히 그 집적수준은 미미함.
- 지금까지 IT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주요 성과로는, SW융합클러스터와 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송도IT센터, 인천테크노파크와 KT컨소시엄의 2019년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공모사업 선정, 송도 투모로우시티의 '스타트업 벤처 폴리스' 조성사업 등이 있음.

○ 최근 서울, 경기, 강원 등 각 지자체도 데이터 경제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 대응기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발표

3. 데이터산업 현황

국내 현황

○ 국내 데이터산업은 서비스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데이터서비스 시장이 7조 2,050억 원(47.5%), 데이터구축·컨설팅 시장은 6조 1,934억 원(40.9%), 데이터솔루션 시장이 1조 7,561억 원(11.6%) 규모로, 2024년에는 23조 743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 전체 데이터산업 시장규모는 2010년 8조 6,374억 원에서 2018년 15조 1,545억 원으로 8년 동안 약 1.8배 증가('10~'18 CAGR 7.3%)

○ 종사자 수 측면에서는, 2018년 총 318,062명으로 '15~'18 사이 연평균 4.3% 성장

- 부문별로는, 데이터구축·컨설팅 인력이 4만 197명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48.7%), 그 다음으로 데이터서비스 부문 3만 885명(37.4%), 데이터솔루션 1만 1,541명 (14.0%)임.

인천시 현황

○ 인천의 데이터산업은 2008년과 2017년 사이에 사업체수에서는 약 3.3배, 종사자수에서

는 약 2.5배 증가하여,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는 있으나, 인천 전체산업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전체규모는 취약함.

- 사업체수는 2008년 115개, 2017년 377개로 약 3.3배 증가하여, 10년간 연평균 14.1% 증가하였으며, 종사자수로는 2008년 1,122명에서 2017년 2,823명으로 약 2.5배 증가(CAGR 10.8%)하였고, 매출액은 동 기간 약 1,573억 원에서 약 4,832억 원으로 약 3.1배 증가함(CAGR 13.3%).
- 2008년~2017년 사이 전체산업 사업체수가 약 1.2배 증가한 것에 비해 데이터산업은 약 3.3배 증가하였으며, 종사자수 측면에서는 전체산업이 약 1.4배 증가한 것에 비해 데이터산업은 약 2.5배 증가하여, 지역내 데이터산업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인식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인천 전체산업 사업체수 대비 데이터산업 비중은 2008년 약 0.07%에서 2017년 약 0.19%으로 약 2.6배 증가하였으며, 종사자수에서도 2008년 약 0.15%에서 2017년 약 0.27%로 약 1.9배 증가함.

○ 지역 데이터산업의 현황을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세부부문별로 살펴보면, 2008~2017년간 3개 부문 모두 사업체수는 약 3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세부부문별 비중에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먼저 데이터솔루션 부문의 사업체수는 2008년 75개에서 2017년 254개로 약 3.4배 증가(CAGR 14.5%)하였으며, 지역 데이터산업 총사업체수 대비 비중은 2008년 65%에서 2017년 67%로 소폭 증가함.
- 데이터구축 및 컨설팅 부문의 사업체수는 2008년 21개사에서 2017년 61개사로 약 2.9배 증가(CAGR 12.6%)하였으나, 비중은 2008년 18%에서 2017년 16%로 약 2.1% 감소함.
- 데이터서비스 부문의 사업체수는 2008년 19개에서 2017년 62개로 약 3.3배 증가(CAGR 14.0%)하였으나, 비중은 2008년 17%에서 2017년 16%로 약 0.1% 소폭 감소함.

○ 상기 사항들을 종합하면, 지역내 데이터산업의 세부업종별로는 데이터솔루션 영역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두 부문은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인천시는 수도권에 입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체수 기준 서울특별시의 약 4%, 경기도의 약 14% 규모이며, 매출액 기준으로는 서울특별시의 약 1%, 경기도의 약 3%에 불과하여, 지역 데이터산업의 열악한 수준을 짐작할 수 있음.

| 표 1| 지역 간 데이터산업 현황 비교

(단위: 수, 명, 백만원)

구분	사업체수 기준		종사자수 기준		매출액 기준	
	사업체수	순위	종사자수	순위	매출액	순위
인천광역시	377	6	2,823	6	483,162	6
서울특별시	10,539	1	182,478	1	41,723,108	1
경기도	2,685	2	49,163	2	14,612,559	2
부산광역시	701	3	4,888	4	807,142	5
대구광역시	476	5	3,741	5	884,180	4
광주광역시	276	9	1,743	9	246,004	9
대전광역시	591	4	7,407	3	911,381	3
울산광역시	121	15	1,104	14	206,450	10
강원도	162	11	2,048	7	187,219	11
충청북도	131	14	1,318	10	317,491	7
충청남도	195	10	798	15	117,909	15
전라북도	149	12	693	16	80,317	16
전라남도	141	13	1,306	11	138,243	13
경상북도	300	8	1,231	12	159,351	12
경상남도	304	7	1,764	8	308,837	8
제주특별자치도	98	16	1,152	13	132,484	14

자료 : 통계청(2008-2017), 전국 사업체조사 & 서비스업조사, 통계청.

4. 실태조사

○ 본 과제에서는 기업지원 수요, 인력수요, 연구개발 수요, 입지수요 등 4개 부문에 대한 데이터 기업의 정책 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일대일 면접방식의 설문조사를 시행함.

- 표준산업분류상 대상 기업 가운데 데이터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 전체 모집단 규모가 명확하지 않고, 응답기업 수가 21개로 한정됨으로써, 설문결과에 대해 통계적 의미를 두기는 어려우나, 데이터 기업의 정책수요를 개략적으로 파악하는데 의의를 둠.

○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업지원 관련 19개의 세부항목 가운데 '지역내 중소기업 유치 및 입주기업 지원사업 확대'가 4.67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벤처펀드, 경영안정자금 등 자금지원 확대' 4.33점, '특허·인증, 제품개발, 상용화 등 응용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 확대' 4.29점의 순으로 나타남.

○ 향후 3년내 인력채용이 가장 시급한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는, '시스템 개발·구축 관련 범용 기술인력' 분야를 9개사가 선택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데이터 처리 및 관리

관련 기술인력'은 5개사,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인력'은 3개사가 각각 선택함.

- 세부산업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범용 기술분야가 공통적으로 가장 시급한 분야로 지목됨.
- 향후 3년내 채용계획 여부와 규모에 대한 질문에서는, 16개 기업이 '시스템 개발·구축 관련 범용 기술인력' 부문에서 평균 1.5명 수준의 채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고, 다음으로 '데이터 처리 및 관리 관련 기술인력'이 8개사에 평균 0.61명, '데이터 기획 및 마케팅 관련 인력'도 8개사에 평균 0.56명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인력채용 또는 유지를 어렵게 하는 외적 환경요인에 대한 5점 척도의 질문에서는 '해당분야 경험을 보유한 경력직 기술인력 확보'가 4.24로 가장 높고, '해당분야 지역출신 기술인력 확보'가 3.90으로 2위를 차지함.

- 인건비 차이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환경 및 인프라 등 수도권 경쟁으로 인한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 하위권을 형성함.
- 그러나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데이터구축·컨설팅 부문이 각각 3.71의 높은 점수를 부여한 반면, 비교적 기업규모가 큰 데이터서비스 부문은 2점의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어, 수도권 기업과의 인력채용 경쟁에서 기업의 규모가 생각보다 영향이 클 수도 있음을 시사

○ 최근 3년 동안 대학 및 연구소, 협회, 타 기업 등 다른 기업 및 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사업 수행 경험 및 횟수, 파트너사의 위치와 수에 대한 단답형 질문에서는, 경험이 없다고 답한 기업이 12개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회(4개사), 1회(3개사)의 순임.

- 전체 평균은 기업당 0.81회이고, 기업당 약 1.89개의 파트너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파트너사의 지역은 인천 내부(0.78개)보다는 서울 및 기타를 포함한 외부 파트너의 비중(1.11개)이 다소 높고, 전반적인 만족도는 대상 기업 9개사가 평균 4.33점으로, 모두 3점 이상의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임.
- 향후 연구개발 투자에서 가장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신기술 기반 세계 또는 국내 최초 상품 개발'을 9개사가 선택하여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새로운 데이터 서비스 발굴 및 기획'의 5개사가 선택함.

○ 현 소재지의 입지적 이점을 서울 마곡, 경기 판교 등 우수 집적지와 비교하여 상대적 이점을 5점 척도로 답하도록 한 질문에서는, '저렴한 지가 및 임대료'(3.33), '기업의 이미지 제고'(3.29), '기존 협력기업/기관과의 근거리 입지로 협력관계 유지'(3.14), '고객 및 수요기업, 시장과의 근거리 입지'(3.05), '인큐베이터, 벤처캐피탈 등 제도적 혜택'(3.05) 정도가 보통인 3점보다 약간 높고, 그 외에는 3점 또는 그 이하로 나타나, 전반적인

평균 만족도는 보통수준인 3점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보다는 신도시와 원도심의 입지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의 만족도에 큰 차이가 나는데, '양질의 정보통신, 오피스 시설 등 인프라'에서 신도시 기업은 3.40, 원도심 기업은 2.64로 큰 차이를 나타내며,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서도 신도시 기업이 3.50, 원도심 기업은 3.09로 두 집단 모두 양호하기는 하나 점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자가와 임대로 나누어 보면, 10개 신도시 기업 가운데 8개, 11개 원도심 기업 중 9개가 임대 기업이고, 나머지 4개 기업이 자가 기업인데, 입지적 장점에서는 오히려 임대 기업이 자가 기업에 비해 비교적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냄.
- 특히 '기존 협력기업/기관과의 근거리 입지로 협력관계 유지'에서 자가 기업은 2.25, 임대 기업은 3.35로, '고객 및 수요기업, 시장과의 근거리 입지'에서도 자가 기업은 2.25, 임대 기업은 3.24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자가 기업의 주변 협업과 시장 접근성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5. 활성화 방안

○ 상기 정책 동향과 산업현황 분석 및 실태조사를 종합하여, SWOT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인천시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SO, WO, ST, WT 전략방안을 유형화하여, 비전 및 전략, 목표, 과제를 재구성하면 아래 |그림 1|과 같음.

- 상기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지역 데이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경영과 생활 인프라를 고려한 쾌적한 집적지 조성 및 저가 공급, 대기업 및 중소기업 유치, 자금 및 연구개발 등 기업지원, 집적지 내 관련 대학·연구소 및 각종 공통 인프라와 혁신지원시설의 입지,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등이 가장 시급한 요건들이라 할 수 있음.

| 그림 1|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비전 및 전략체계

1) 데이터 인프라 확충

○ 데이터산업은 타 산업과 달리 대규모 데이터 확보, 공유, 유통 등 활용기반을 갖추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분야의 하나임.

- 공공은 물론 민간의 축적된 데이터를 연계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일 기관 또는 기업의 데이터만으로는 그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데이터의 확보와 활용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확보, 공유, 유통 기반에 대한 공공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
- 또한, 데이터가 산업혁신은 물론 사회혁신의 촉매제로서 역할이 기대되는 만큼,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공부문의 통계 기반이 우선 확충되어야 하고, 민간데이터와 연계하여 활용도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MyData) 등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데이터 거래 등 관련 법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공항만을 중심으로 한 물류, 바이오 등 지역전략산업과 교통, 생활, 안전 등 지역사회 활동과 연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철저한 사전기획을 통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 클러스터 조성

○ 데이터산업을 포함한 지식서비스업은 편리한 교통과 생활 인프라, 고급인력 확보의 용이성, 고객과의 접근성 등 주변의 기업경영 및 생활 환경이 잘 갖추어진 장소를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 조성된 송도를 중심으로 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아직은 계획단계에 있는 계양테크노밸리가 데이터산업 집적지로서 대안이 될 수 있음.

- 특히 계양테크노밸리는 상암의 디지털미디어 및 콘텐츠 기업과 마곡의 기업 R&D센터와도 가깝고, 서울에 인접하여,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구로디지털단지를 대체 또는 보완할만한 IT서비스의 집적지로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계양테크노밸리의 상호협력적 관계와 역할분담을 토대로 지식서비스 분야의 기능적 배분이 가능할 것임.

○ 계양테크노밸리 주변 상암의 디지털미디어 본사, 마곡의 IT R&D센터,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제조기업 및 R&D센터 등이 데이터산업과 IT서비스업의 기초기술 조달과 수요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 4개 클러스터간 상호협력적 보완관계 형성이 가능할 것임.

- 계양테크노밸리의 일부에 데이터산업과 AI, 블록체인 등 IT서비스업을 집적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강소기업을 위한 저가의 부지 및 오피스시설을 공급하고, 중소영세기업을 위해 적절한 규모의 임대공간도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클러스터 내 데이터산업 및 IT서비스업 관련 대학 연구시설 및 정부 연구기관, 지자체 특화기술연구소, 시험 및 실증시설, 인증기관, 기업지원기관 등 혁신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입주기업의 혁신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3) 산학연 협력

○ 클러스터 내 IT서비스 관련 대학 및 연구시설의 입지는 입주기업의 상용화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을 위해 매우 중요함.

- 계양은 교통이 편리하고, 상암 및 마곡과의 인적이동의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의 고급인력 확보에 매우 용이한 입지여건이기는 하지만,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산학연 협력과 평생 기술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학과 기업의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타 분야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데이터산업 부문이 광범위한 범위의 신기술 분야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 자체의 연구개발만으로는 효율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인천시는 연구개발 기금 등을 마련하여 상용화

및 융복합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 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기술창업과 마케팅 지원 등 기업지원 기능을 연계하여, 클러스터가 조기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학은 학부보다는 대학원 중심의 연구실 또는 연구센터를 유치하여, 연구개발 협력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인천시와 협력하여 인력양성전담 센터를 설치하는 등 데이터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공급과 직장인 재교육을 위한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4) 특화분야 육성

○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잠재적 수요와 기회요인을 토대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나치게 세세업종에 대한 인위적인 선택과 집중은 시장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음.

- 따라서 데이터산업의 데이터솔루션, 데이터구축컨설팅, 데이터서비스의 3개 세부업종에 대해, 특정 세부업종에 대한 전략적 선택과 집중보다는 각 세부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정책을 발굴 및 배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5) 창업 및 기업지원

○ 수요창출과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지원 측면에서 데이터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데이터 활용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국데이터진흥원의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활용하거나, 인천시에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여, 데이터 기업의 수요창출은 물론,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지원
- 지역내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와 연계하여, 기업지원을 담당할 '빅데이터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스마트시티㈜의 기존 조직을 활용하더라도 빅데이터 관련 중소기업 지원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사업 유치 및 인천시의 자체적인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 데이터산업 태동기의 기업유치와 성장을 위한 적절한 규모의 수요창출이 필요함.
- 특히, 바이오, 자동차, 관광, MICE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데이터 활용을 촉진시키고, 더불어 데이터 확보 및 축적이 가능하도록, 공모방식 등을 통해 업종간 다양한 융복합사업을 발굴하도록 해야 함.

○ 창업단계에서부터 데이터 관련 지원항목을 연계하여, 창업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데이터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상기 5개 전략목표에 대한 15개 실천과제를 시행 시기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음. 다만, |표 2|의 2022년은 목표연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표 2|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활성화 사업

전략목표	실천과제		'19	'20	'21	'22
데이터 인프라 확충	빅데이터 거래소,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유치 및 설립					
	기초통계 등 공공 데이터 기반 확보					
	마이데이터, 데이터 개방 및 수집유통 등과 관련 법제도 정비					
클러스터 조성	데이터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집적지 조성					
	집적지내 대중소 기업 유치					
	집적지내 대학 및 연구소, 인증시설 등 혁신지원시설 유치					
산학연 협력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	융합캠퍼스 조성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확대				
	인력양성	캠퍼스내 대학원 과정 및 연구실 유치				
		인력양성센터 설립				
	데이터 R&D 펀드 조성					
특화분야 육성	지역 혁신수요 대응형 전략육성 부문 육성 : 데이터구축컨설팅					
	특화분야 육성 : 데이터솔루션					
	특성화 부문 육성 : 데이터서비스					
창업 및 기업지원	데이터 활용지원 사업 확대 : 빅데이터센터, 바우처 사업 등					
	데이터 창업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수요창출 사업 확대 : 스마트산단, 업종간 융복합 사업 등					

이 보고서는 인천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연구원 홈페이지(www.ii.re.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